

군범죄 위험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redict Factors for Military Crime Risks

김 상 균(Kim, Sang Gyun)**

ABSTRACT

Recent decades have been marked by tremendous breakthroughs in clinicians' ability to diagnose risk assessment of crime. Assessments of crime risk assessment have become commonplace in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as crime group, while rare, are significantly more prone to violent crime and recidivism than noncrime group, and disorder is widely understood to be highly resistant, if not immune, to treatment. A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isk assessment appears well positioned to identify the ideal candidates for waiver from the adult criminal system to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Assessment of offender traits has proven to be useful for screening,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in the juvenile or adult correctional system and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For preventing military accident or crimes and treating military offenders suitably,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among risk of military accident, factors of pre-entrance military of military offenders. First, we discriminate the factor which is related to persistency of military accidents. And the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is risk of accidents with pre-entrance factors. Finally, we evaluate characteristics which show relationship with pre-entrance factors.

This success indicates that a small subset of offenders commits a majority of general and serious crimes and has led to a recent and growing interes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might possess pre-entrance military traits. The current findings also rais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subtypes of criminal offenders in military. The extent to which it is possible to attenuate risks assessed as high on such measures remains unknow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have general problems for second materials and literature search.

Key Words: 군범죄(military crime).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범죄예측(crime predict),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1. 서론

우리는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감과 동시에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정보

* 이 연구는 2007년도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내용 중에 일부를 새롭게 정리한 것임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화 시대를 살고 있다. 고유의 전통가치를 뒤로 하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일상적인 생활방식마저도 와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변화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과 무규범 상태, 소외와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범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종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범죄는 점점 조직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문제는 일반사회 뿐 아니라 군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군 범죄는 군인의 사기와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군 관리자들은 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군 입대 초기부터 사고유발 예상인원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예측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¹⁾

과거부터 범죄를 조기에 예측하고 범죄 우려자를 관별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외 형사사법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²⁾ 국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폭력의 위험성, 재범위험성의 예측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미 등지에서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범죄행위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범죄행동과 관련된 위험성요인(risk factors) 혹은 욕구요인들(needs factors)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들 요인들에 대해 교정처우단계에서 적절하게만 대처한다면 범죄자의 재범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범죄자의 사회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범죄행위를 유인하거나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다(McGuire, 1995).

따라서 범죄우려자 내지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식별과 개입 및 대응은 범죄유발요인들을 없애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Andrews(1996)는 범죄발생요인을 현재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결핍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욕구나 결핍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 이를 감소시켜준다면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군대에서도 군복무 부적응자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대

- 1) 특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분드, 부탄가스 등 유경험자 및 경험 우려자가 군에 입대하여 총기, 탄약, 폭발물 등 위험장비/물자 관련 보직에서 근무하게 되어 과거의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환각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조폭에 소속되어 있던 자가 입대한 이후에도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무기/탄약을 반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조폭에 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성연애자가 군에 입대하여 동료 및 후임에게 성적 폭행을 가하고 동성연애를 조장할 경우 병영문화가 문란해질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병사에 의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2) 대표적인 연구에는 최인섭 외(200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최충욱 외(1993), “청소년비행예측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준호 외(1995),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노성호(1994),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이상현(1996), “범죄가능성의 예측에 관한 연구”; 이수정 외(2005) “보호관찰 분류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이수정 외(2005),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표적인 시도는 현재 각 부대별 활용하고 있는 심리검사인 MMPI, KMPI, 육군표준인성검사, 군 인성검사 등이 그것이다. 위의 심리검사도구는 신뢰도와 활용도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 입대해서는 안 될 자원 또는 집중관리 되어야 할 인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군 조직에서 활용 중인 심리검사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 범죄 위험 인원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도구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예비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군입대전의 경험요인들인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비행요인들이 군입대후의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련이론의 검토 : 범죄발전이론을 중심으로

오늘날 범죄양상의 특징은 범죄가 흉포화, 전문화, 집단화, 연소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회성범죄자(one-time offender)보다는 지속범(persistent offender)의 숫자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에서 발간한 범죄백서(1997)에 의하면 1987부터 1996년까지 최근 10년간의 범죄율은 25%이상 증가 하였고 이중 지속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 14%에서 작년 1996년에는 31%로 1987년에 비해 약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의 한 조사연구(wolfgang et al, 1972)에 의하면 “6% 현상”이라고 하여 조사대상자의 6%가 전체 범죄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범죄지속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며, 과거 범죄경험이 많을수록 범죄지속현상이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지속현상의 이유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을 제안하고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범주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범죄이후의 환경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에 의하면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죄자가 체포 또는 구속 등 자유권상실의 경험, 경제적인 기회의 제한, 전과자라는 사회적·법적 낙인 등 범죄자 주변의 환경변화가 범죄지속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성향의 문제이며, 이것은 한 번 형성되는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잘 변하지 않으므로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지속형 범죄자가 된다고 하는 개인적 성향을 중시하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발전이론은 비행청소년들의 유년기의 경험을 중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기의 경험뿐 아니라 소년기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다(Thornberry, 1987; Loeber & Leblanc, 1990; Patterson et al., 1992;

Sampson and Laub, 1993). 즉, 청소년기에 비행이후 더욱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여 보통의 아이들로 성장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발전이론의 경우 다양한 사회 환경요인들을 강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손베리(Thornberry, 1987)는 그의 상호작용이론에서 비행의 원인을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에서 다뤄 연령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어떻게1 다르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청소년시기를 초기(11-13세), 중기(15-16세), 후기 (18-20세)로 구분하였는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대가 비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를수록 작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행을 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고 주장해 부모와의 비행의 상호관계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청소년기 전체에서 모두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 초기 때보다는 청소년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를수록 그 관계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그는 저연령기에 비행의 시작은 부모와의 애착이나 학교공부への 몰입의 부족에서 비롯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의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아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논의를 모두 수용하였다.

샘슨과 라웁(Sampson and Laub, 1993)은 어려서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어린시절 경험들이 사회와의 유대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행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혹은 유대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시절부터 문제 성향을 보이면 이로 인해 부모와의 유대가 악화되고, 학교에 부적응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난하지 못해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누적적 지속(cumulative continuity)’라고 했다. 그러나 소년 시절 문제아들이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회복되거나 강화될 경우 더 이상 비행을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모피트(Moffitt, 1993)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교육과 신경심리계의 손상이 충동적이고, 언어·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여도 계속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려서의 문제 성향과 행동으로 인해 주변 관계, 학교 적응, 취업실패 그리고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이 그 이유로 보고 있다. 모피트는 비행청소년집단을 두 분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문제성향과 문제 행동을 보인 조기진입자들로 그들은 생애지속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폭력 등 심각한 비행을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소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포함되는 다른 부류는 어려서 문제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 후기진입자들로 이들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감독미비나 비행친구에 노출됨으로서 모방·학습 등을 통해 한시적인 비행청소년이라고 보고 있다.

2. 관련 선행연구

범죄경력과 범죄의 관련성 내지 재범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학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Reckless(1960)는 경력범죄의 개념을 처음 발전시켰으며, 그는 경력범죄자의 특징으로, ① 범죄를 지속하기위해서 범죄기술을 개발하고, ② 범죄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반면 경찰, 사회 집단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찰, 판사, 정치가, 사업가들은 부정직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③ 대부분의 경력범죄자는 소년기에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고, 하류계층이고, 교도소를 범죄기술을 학습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④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정상인과 차이가 나지 않으며, ⑤ 마지막으로 자신의 범죄행동에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범죄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Nagin과 Farrington(1991)은 IQ, 자녀 양육 태도, 부모의 범죄력, 모험심 등을 직접 측정한 결과 범죄지속현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Farrington과 West(1990)는 캠브리지 연구에서 18세의 동일집단연구에서 반사회적 요인(antisociality), 즉 문신, 적대적인 태도, 불안정한 직업, 반사회적인 친구, 음주운전경험, 과음, 흡연, 도박, 불법약물남용 등의 측정에서 이런 요인들이 범죄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Holland와 McGravey(1984)는 비폭력범죄가 폭력범죄보다 전이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필라델피아 연구에서 성인 누범들 사이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olfgang, 1983). West(1982)는 범죄 지속 경력에 따라 일회성 범죄, 지속성 범죄, 일시적 누범, 지속누범들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는 일회성범죄자는 무비행자와 배경이 유사하고, 지속누범은 대가족, 빈곤가정, 부모 범죄력, 저지능, 10대 때 교사로부터 문제아로 취급 받은 자가 많았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회적인 문제, 즉 실업, 사회적 소외,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의 생활이 상호작용하여 지속형 누범이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Farrington & West, 1990). 또한 Loeber(1982)는 일회성범죄자보다 지속형 범죄자는 어린나이에 체포경험이 있다고 하여 나이와 지속범죄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松道廣(1968)은 절도누범에 관한 연구에서 누범의 범주를 단일방향범, 동종방향범, 이종방향범, 다종방향범으로 분류하고 지능은 정상치보다 다소 낮고, 20세 이전에 모의 결손률이 높고, 수동적, 환경 의존적인 생활태도와 의지가 박약하며, 교도소생활은 모범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한다. 山口靜夫와 동료들(1983)은 각성제 사범 수형자에 관한 연구에서 누범의 특징을 보면, 무직자, 재범자 중 남자의 비율이 약3배정도 많다고 한다.

사실 범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Simon, 2001; Gerdes, 2000). 살인자의 경우에서 살인의 전조가 되는 행위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온 인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임준태, 2003: 224-225).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장기간의 사회적 박탈 및 심리적 학대상태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이수정 외, 2004: 58-59). 이들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처벌을 불공정하고 학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냉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Simon, 2001).

Whitman & Akutagawa(2003)은 연쇄살인범의 행동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아기의 정서적 박탈감일 것이라고 하였다. Hale(1993)은 아동기의 상실과 박탈이 '잃어버린 힘(power)을 되찾기 위한 추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으며, Bollas(1995)는 연쇄살인범의 아동기의 이러한 정서적 사망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Bollas(1987)는 연쇄살인범이 어떤 대상(여성)에 대하여 매력을 살인을 통하여 자신의 아동기 상실감과 박탈감을 보상받게 된다고 하여 아동기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강력범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많은 학자들이 어린 시절의 잘못된 경험이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군대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서는 입대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는 많지않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MMPI등 임상척도와 범죄의 관련성이나 정신질환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지광준, 1987; 이규환, 1989; 박봉상, 1984; 우종하, 1984; 길진환 1990; 김수룡, 이태경, 조선익, 1997) 대표적으로 김지옥의 연구를 보면 복무부적응에 의한 수감자들의 MMPI분석결과 타당도 척도에서는 L, K척도가 높았고, 임상척도에서는 Pd, Pa, Sc가 가장, 그리고 다음으로 Hs, Hy, D, Pt였다고 한다. 입영대상자 중 자해혼자의 경우는 MMPI척도 중 F, Pa, Ma, PD, Sc, Pt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반건호, 오동재(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소견 중 정신과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12%였다고 한다. 배대균(1990)의 연구에서는 교도소 남자 재소자 중 17.2%가 문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군입대전 경험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신응섭(1998)이 전방부대를 직접 방문한 면접결과에 의하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원인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파악하는 사유로는 결손가정, 복무부적응, 가정문제, 이성문제, 건강상의 문제와 입대전 방탕생활(음주문제, 약물복용, 집단행동, 폭력경험) 등을 들고 있다. 오세중의 사병집단에 대한 연구에서도 18세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문신집단에서 65명(72.2%)으로 대조집단 12명(27.9%)보다 의미 있게 많았다. 지금까지 군 범죄와 관련된 연구들은 군 실무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나 군범죄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군입대적 경험과 군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비행이나 다른 범죄 집단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3. 범죄위험성의 예측

범죄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한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묘사(description), 설명

(explanation), 예측(prediction), 그리고 통제(control)의 4단계와 목적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범죄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범죄를 묘사하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설명하고,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여 범죄를 예측하며, 이는 미래의 범죄를 통제 및 조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과거부터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의 주요 관심사였다. 즉, 범죄자가 미래에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또한 범죄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법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과거로부터 해 오고 있는 오랜 과제이다(Howitt, 2002).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risk factor)은 ‘범죄 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인 또는 재범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정의하며, 범죄는 ‘법에 규정된 범법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또는 미래에 재범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비판적인 관점들 존재한다(박광배, 2001:331-333). 이것은 예측 자체에 대한 불신, 즉 정확한 예측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파생된 비판으로, 1974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적 견해를 발표했고,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공식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범죄예측을 하는 주체인 심리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에서 범죄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확한 예측이 부정확한 예측보다 더 적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의한 범죄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전문가들은 미래에 있을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현재 개인에게 불이익 혹은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범죄예측이라는 것은 심리전문가의 직업윤리와 상충된다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거나 치료적 접근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III. 연구방법

1. 조사의 방법

조사대상의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2개 이상의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는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³⁾ 육군에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교집단인 일반사병과 통제집단인 수감사병⁴⁾으

3) 층화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을 일련의 하위집단으로 층화시킨 다음 각 하위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홍두승, 사회조사분석(서울: 다산출판사, 2003), p.73.

4) 수형사병이란 군교도소나 영창에 수형된 사병을 의미한다.

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였다. 다만 수감사병의 경우 조사된 교도소나 영창은 수감사병의 전수를 조사하였다.

표본조사기간은 2007년 8월7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는데, 조사자들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회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비교집단은 153명과 통제집단은 전체 모집단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현재 방문 가능한 부대 수감시설에 수감 중인 81명의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는 SPSS10.0을 사용하여 기술총계와 차이검증을 시행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 부대와 설문수거현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총 234명 중 일반사병이 153명(65.4%)이며, 교도소 수형사병이 81명(34.6%)이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근무 개월 수는 부대 전입 후 6개월 이내가 65명(28.6%), 7개월에서 1년 사이가 64명(28.2%), 1년에서 1년6월 사이가 62명(27.3%), 1년 7월에서 2년 사이가 36명(15.9%)이었다.

또한 이들의 학력은 중퇴·졸자가 14명(6.0%), 고퇴·졸자가 83명(35.8%), 전문대재학 중인 자가 43명(27.2%), 전문대졸이 3명(1.3%),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87명(37.5%), 대졸 이상인 자가 2명(0.9%)이었다. 신앙생활의 물음에 종교의 경우 무교가 제일 많은 85명(36.8%), 다음은 기독교가 69명(29.9%), 불교 49명(21.2%), 천주교 29명(11.3%)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사병들의 부모직업의 경우 상업·서비스업 78명(33.8%), 공업·건설업 51명(22.1%), 농업·수산업이 35명(15.2%), 사무·관리직 18명(7.8%), 공무원·군인·교육자 11명(4.8%), 정치인·법률가 2명(0.9%)이었다.

형사처벌 사유는 군무이탈이 가장 많은 20명(60.6%), 폭행(상해) 9명(12.2%), 성범죄 5명(6.8%), 살인 3명(4.1%), 강·절도 3명(4.1%), 도박 2명(2.7%)로서 다양한 범죄 유형을 나타냈다. 현재 수감 사유는 역시 군무이탈이 가장 많은 36명(48.6%), 폭행(상해) 9명(12.2%), 성범죄5명(6.8%), 살인 3명(4.1%), 강·절도 3명(4.1%), 도박2명(2.7%)으로 조사되었다. 입대 후 처벌 경험에 대한 질문에 없다 185명(85.6%), 있다 31명(14.4%)로 조사되었으며, 군기 교육 회수에 대한 질문에 1-2회 14명(63.7%), 3-4회 6명(27.3%), 5회이상 2명(9.0%)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회수에 대한 질문에 1회 19명(65.5%), 2회5명(17.2%), 3회 1명(3.4%), 4회 4명(13.8%)이었으며, 형사처벌 회수에 대해 1회 24명(85.7%), 2회 2명(7.1%), 3회 1명(3.6%), 4회 1명(3.6%)으로 조사되었다.

IV. 조사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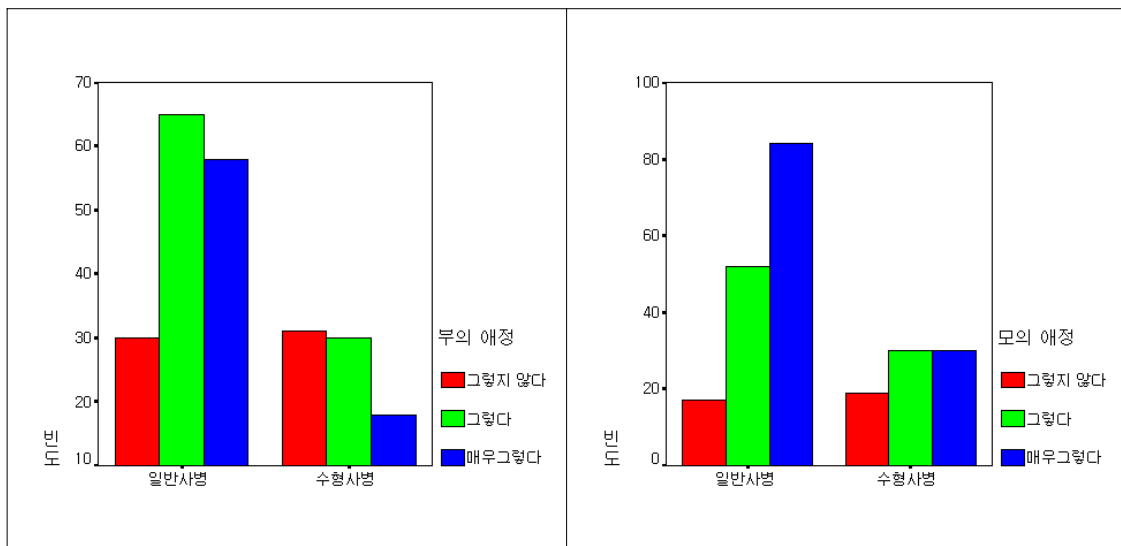
1. 가족요인과 군범죄 위험성의 관계

1) 부모애정요인

군 사고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사병의 성장기 부모의 애정정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부와 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총 23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95명(40.9%), 76명(32.8%)으로 73.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 38명,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61명 26.3%나 되었다.

또한 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총 232명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114명(49.1%), 82명(35.3%)으로 84.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 14명, 전혀 그렇지 않다 22명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36명 15.5%였다. 이는 부의 애정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명으로 10%에 가까운 것이 두드러진다.

<그림-1> 집단간 부모애정의 차이



이를 다시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분리하여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일반사병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153명 중 30명(19.6%)인데 반해, 수형사병의 경우는 79명 중 31명(39.2%)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03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로부터 애정을 받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일반사병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153명 중 17명(11.1%)인데 반해, 수형사병의 경우는 79명 중 19명(24.1%)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1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적·언어적 폭력요인

조사대상 사병의 아동기에서 군입대전 까지 부모로부터 신체적 혹은 육체적 폭력을 경험한 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 230명 중에 73명(31.7%)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총 228명 중 62명(27.2%)이었다.

<표-1> 신체적·언어적 폭력경험

비 교	신체적 폭력경험		언어적 폭력경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었다	157	68.3	166	72.8
있었다	73	31.7	62	27.2
합계	230	100.0	228	100.0

이를 다시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분리하여 폭력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신체적 폭력의 경우, 일반사병 151명 중 44명(29.1%)이 경험하였고, 수형사병 79명 중 29명(36.7%)이 경험하여 수형사병의 신체적 폭력경험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Pearson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 일반사병 151명 중 38명(25.2%)이 경험하였고, 수형사병 77명 중 24명(31.2%)이 경험하여 수형사병의 언어적 폭력경험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Pearson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3) 부모갈등요인

조사대상자의 부모사이에 부부싸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부부싸움을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부부싸움의 경우, 조사대상자 총 230명 중 전혀 없었다가 103명(44.8%)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있었다와 많은 편이었다가 각각 53명(23.0%)과 18명(7.8%)이었다. 그런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부부싸움의 경우는 약간 있었다가 총 229명 중 83명(36.2%)으로 가장 많고, 많은 편이라는 응답도 35명(15.3%)이나 있었다.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구분하여 부부싸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동

만하지 않는 부부싸움의 경우, 약간 있었다와 많은 편이었다고 응답한 일반사병은 151명 중 74명(49%)이며, 수형사병은 78명 중 44명(56.4%)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721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신체폭력을 동반한 부부싸움의 경우, 표에서와 같이 일반사병 151명 중 38명(25.2%)이 약간 있거나 많은 편이라고 지적한데 반해, 수형사병은 79명 중 33명(41.8%)이 이러한 반응을 보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형사병들 중에는 성장기에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부부싸움의 정도가 일반사병보다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2> 부부싸움의 정도

비 교	비신체폭력적 부부싸움		신체폭력적 부부싸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없었다	56	24.5	103	44.8
거의없었다	55	24.0	56	24.3
약간있었다	83	36.2	53	23.0
많은편이었다	35	15.3	18	7.8
합 계	229	100.0	230	100.0

4) 부모양육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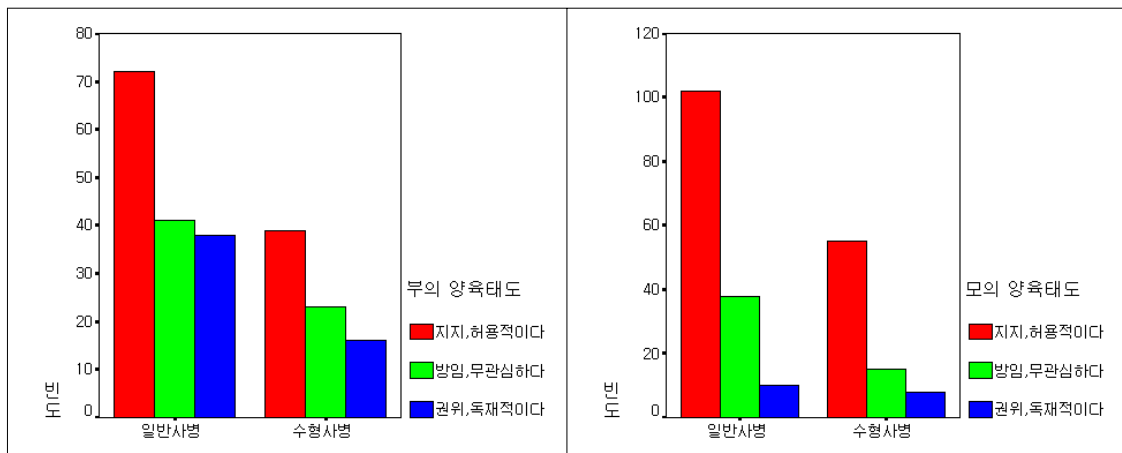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부모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부의 양육자세의 경우 허용적이며 지지적이라는 응답이 총229명 중 101명(48.5%)로 가장 많았고, 방임적이며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64명(28.0%), 권위적이며 독재적이라는 응답이 54명(23.6%)이었다. 또한 모의 양육자세의 경우, 응답자 228명 중 허용적이며 지지적이라는 응답이 157명(68.9%)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적이며 무관심하다가 53명(23.3%), 권위적이며 독재적이라는 18명(7.9%)이었다.

<표-3> 부모의 양육태도

비 교	부의 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허용적으로	60	26.2	88	38.6
지지적으로	51	22.3	69	30.3
방임적으로	37	16.2	28	12.3
무관심하게	27	11.8	25	11.0
권위적으로	37	16.2	12	5.3
독재적으로	17	7.4	6	2.6
합계	229	100.0	228	100.0

이를 다시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부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사병의 경우 총151명 중 지지,허용적이다가 72명(47.7%)이며, 방임,무관심하다가 41명(27.2%), 권위,독재적이다가 38명(25.2%)였다. 한편 수형사병의 경우 총 78명 중 지지,허용적이다가 39명(50.0%)이며, 방임,무관심하다가 23명(29.5%), 권위,독재적이다가 16명(20.5%)였다.

<그림-2> 집단간 부모양육태도의 차이



그런데 양 집단 간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이 .730으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또한 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위의 그림과 같이 일반사병의 경우 총151명 중 지지·허용적이다가 102명(68.0%)이며, 방임·무관심하다가 38명(25.3%), 권위·독재적이다가 10명(6.7%)였다. 한편 수형사병의 경우 총 78명 중 지지·허용적이다가 55명(70.5%)이며, 방임·무관심하다가 15명(19.2%), 권위·독재적이다가 8명(10.3%)였다. 그런데 이를 다시 양 집단 간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이 .426으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2. 입대전 비행경험과 군 범죄의 관계

1) 성관련 경험요인

각종 군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변수 중 미성년기에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총 229명의 응답자 중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으로 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당한 경험이 있다는 3명은 일반사병 1명과 수형사병 2명이었다.

<표-4> 조사대상자의 성폭행 및 성경험

비 교	성폭행당한 경험		성경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다	226	98.7	124	53.7
있다	3	1.3	107	46.3
합계	229	100.0	231	100.0

한편 미성년기에 성경험을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1명 중 107명(46.3%)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5> 집단간 미성년기의 성경험

비 교		미성년기 성경험		전체
		없다	있다	
일반사병	빈도	93	60	153
	퍼센트	60.8	39.2	100.0
수형사병	빈도	31	47	78
	퍼센트	39.7	60.3	100.0

이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일반사병의 경우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총 153명 중 60명(39.2%)인데 반해, 수형사병의 경우는 78명 중 47명(60.3%)이었다. 즉 양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이 .002로써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가출, 자해 또는 자살시도 경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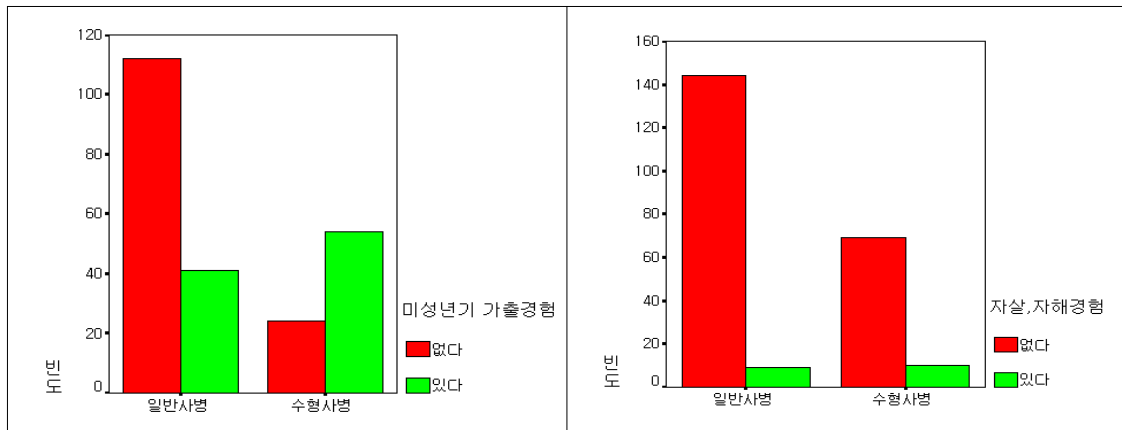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미성년기의 가출경험과 입대 전 자해나 자살시도 등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가출경험의 경우, 조사대상 231명 중 95명(41.1%)이 미성년기에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해 및 자살시도경험의 경우는 응답자 232명 중 19명(8.2%)이 경험하였다고 답했다.

<표-6> 가출, 자해 또는 자살시도 경험

비 교	가출경험		자해 또는 자살시도경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다	136	58.9	213	91.8
있다	95	41.1	19	8.2
합계	231	100.0	232	100.0

미성년기의 가출경험을 다시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사병의 경우 총 153명 중 있는 경우가 41명(26.8%)인데 반해 수형사병의 경우는 총 78명 중 54명(69.2%)이 가출경험이 있어, 양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000으로 양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3> 집단 간 가출 및 자해경험의 차이



군 입대 전의 자살시도 및 자해 경험을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일반사병의 경우 조사대상 153명 중 9명(5.9%)인데 반해, 수형사병은 79명 중 10명(12.7%)로 두 배가 넘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74로 양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3) 음주, 흡연, 약물등 경험요인

조사대상자들이 미성년기에 음주, 흡연 등을 한 경험과 군입대 전에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을 흡입한 경험 및 마약사용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음주경험은 조사대상 231명 중 178명(77.1%)이, 흡연경험은 조사대상 223명 중 138명(61.9%)이, 그리고 본드 등의 경험은 조사대상 227명 중 12명(5.3%)이, 마약사용경험은 조사대상 227명 중 3명(1.3%)이 각각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일반사병과 수형사병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음주경험의 경우 일반사병이 153명 중 116명(75.8%)이 경험하였고, 수형사병의 경우 78명 중 62명(79.5%)이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 간의 음주경험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530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미성년기의 흡연경험의 경우, 일반사병 150명 중 81명(54.0%)이 경험한 반면,

수형사병의 경우는 73명 중 57명(78.1%)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1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군 입대 전까지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을 흡입한 경험을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사병의 경우 총 153명 중 1명(0.7%)이 흡입한 반면, 수형사병은 74명 중 11명(14.9%)이 흡입하여 양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마약사용경험의 경우도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일반사병의 경우 마약경험이 있는 사병이 152명의 응답자 중 한명도 없는 반면, 수형사병 75명 중에는 3명(4.0%)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01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7> 음주, 흡연, 약물 등의 경험

비 교	음주경험		흡연경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다	53	22.9	85	38.1
있다	178	77.1	138	61.9
합계	231	100.0	223	100.0
비 교	본드, 신나, 부탄가스경험		마약경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다	215	94.7	224	98.7
있다	12	5.3	3	1.3
합계	227	100.0	227	100.0

한편, 조사대상 사병들의 미성년기 음주 및 흡연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음주의 경우 전체 190명 중 월에 1회가 62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주에 2-3회가 43명(22.6%), 주에 1회가 40명(21.1%), 2-3주에 1회가 36명(18.9%) 순이었고, 거의 매일도 9명(4.7%)이었다. 또한 흡연의 경우, 전체 156명 중 2-3일에 1갑이 65명(41.7%), 하루에 1갑 이상이 42명(26.9%), 월에 1-2개피, 월에 1갑, 주에 2갑 순이었다.

미성년기의 음주정도가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이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일반사병은 응답자 120명 중 월 1회 40명(33.3%), 주에 1회 31명(25.8%), 주에 2-3회 24명(20.0%), 2-3주에 1회 20명(16.7%), 거의매일 5명(4.2%) 순이었다. 반면 수형사병은 총 70명 응답자 중 월 1회 22명(31.4%), 주에 2-3회 19명(27.1%), 2-3주에 1회 16명(22.9%), 주에 1회 9명(12.9%), 거의매일 4명(5.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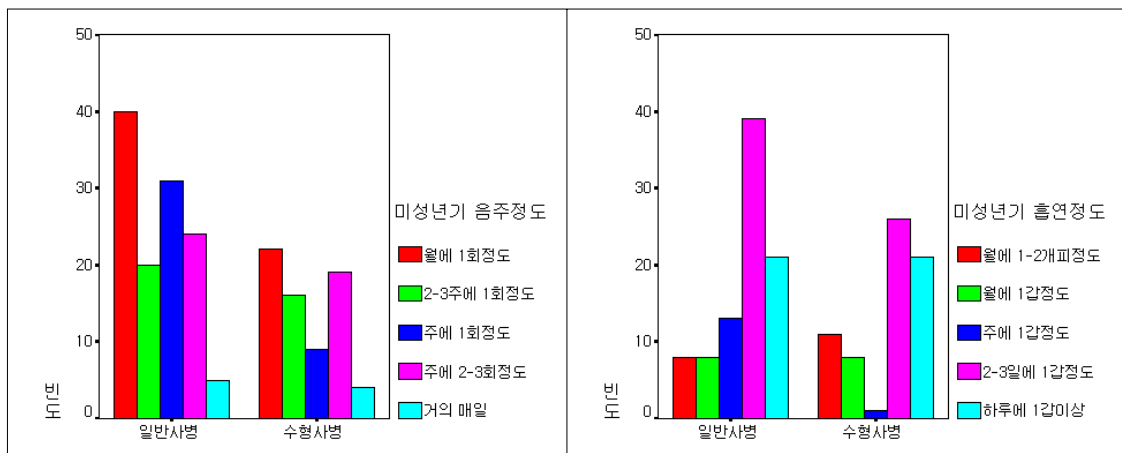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확률 .223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8> 음주와 흡연의 정도

비 교		월에 1회	2-3주에 1회	주에 1회	주에 2-3회	거의 매일	합계
음주 정도	빈도	62	36	40	43	9	190
	퍼센트	32.6	18.9	21.1	22.6	4.7	100.0
비교		월에 1-2개피	월에 1갑	주에 2갑	2-3일에 1갑	하루에 1갑이상	합계
흡연 정도	빈도	19	16	14	65	42	156
	퍼센트	12.2	10.3	9.0	41.7	26.9	100.0

또한 미성년기의 흡연정도가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이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일반사병은 응답자 89명 중 2-3일에 1갑 39명(43.8%), 하루에 1갑 이상 21명(23.6%), 주에 1갑 13명(14.6%), 월에 1갑과 월에 1-2개피가 각각 8명(9.0%)이었다. 한편 수형사병의 경우 응답자 67명 중 2-3일에 1갑 26명(38.8%), 하루에 1갑 이상 21명(31.3%), 월에 2-3개피 11명(16.4%), 월에 1갑 8명(11.9%), 주에 1갑 1명(1.5%)이었다.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확률 .033으로 유의미했다.

<그림-4> 집단 간 음주 및 흡연의 차이



4) 폭력물 접촉경험요인

조사대상자들이 군 입대 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기기를 통해 폭력적 게임을 즐겨하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총 232명 중 그렇다 85명(36.6%), 그렇지 않다 63명(27.2%), 전혀 그렇지 않다 50명(21.6%), 매우 그렇다 34명(14.7%)이었다. 즉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인 119명(51.3%)이 군 입대 전 폭력적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군 입대 전에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나 영화를 즐겨 시청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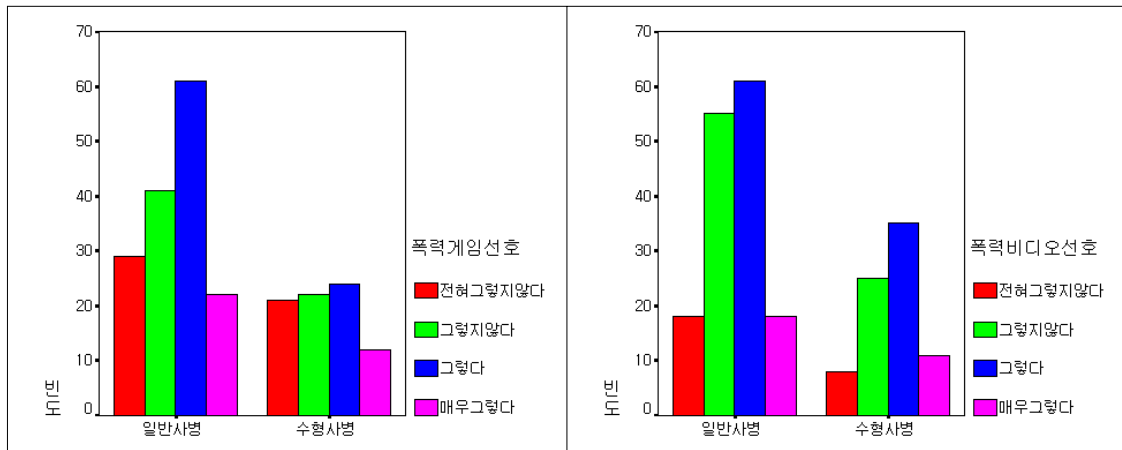
응답자 총 231명 중 그렇다 96명(41.6%), 그렇지 않다 80명(34.6%), 매우 그렇다 29명(12.6%), 전혀 그렇지 않다 26명(11.3%)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폭력물 등을 시청한 경우가 절반이상인 125명(54.2%)이었다.

<표-9> 폭력게임 및 폭력물 접촉경험

비 교	폭력적 게임		폭력물 시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50	21.6	26	11.3
그렇지않다	63	27.2	80	34.6
그렇다	85	36.6	96	41.6
매우그렇다	34	14.7	29	12.6
합 계	232	100.0	231	100.0

군입대전 폭력게임을 즐긴 경험의 정도에 대해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비교한 결과, 일반사병은 총 153명 중 긍정적인 응답이 83명(54.3%)인데 반해, 수형사병은 79명 중 36명(45.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이 .435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림-5> 집단 간 폭력물 접촉의 차이



또한 군입대전 폭력적 비디오나 폭력영화 등의 선호도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사병 152명 중 긍정적인 경우가 79명(51.9%)인데 반해 수형사병은 79명 중 46명(58.2%)였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839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학교생활의 부적응경험요인

조사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의 적응도를 지각, 결석,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도, 학칙에 따른 징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관계, 왕따경험, 불량써클가입, 전학회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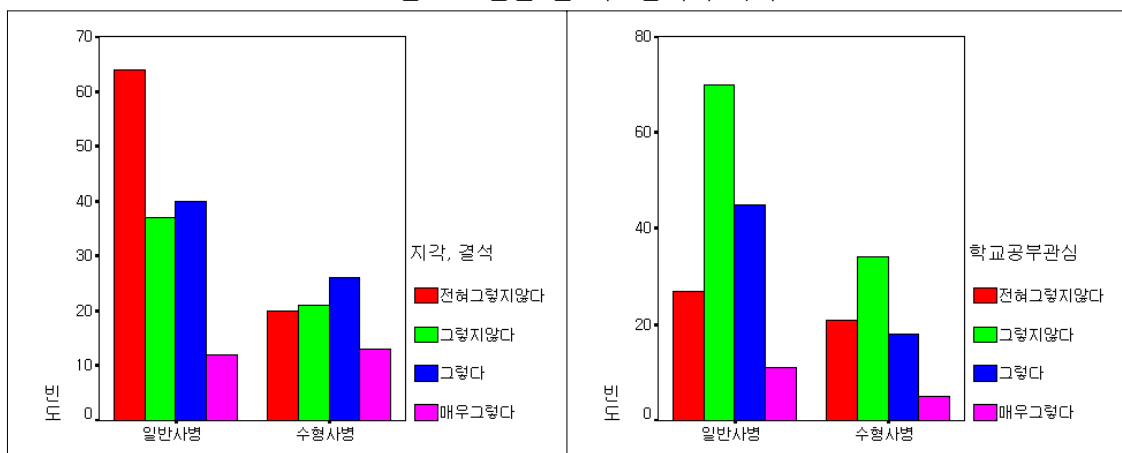
1) 지각, 결석 및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정도

조사대상자들이 학창시절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늦거나 결석을 자주하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총 233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 84명(36.1%), 그렇지 않다 58명(24.9%), 그렇다 66명(28.3%), 매우 그렇다 25명(10.7%)이었다. 또한 학창시절에 학교공부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총 231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 48명(20.8%), 그렇지 않다 104명(45.0%), 그렇다 63명(27.3%), 매우 그렇다 16명(6.9%)이었다. 거의 대부분(152명(65.8%))이 흥미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10> 학교에의 참여정도

비 교	지각, 결석 정도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84	36.1	48	20.8
그렇지않다	58	24.9	104	45.0
그렇다	66	28.3	63	27.3
매우그렇다	25	10.7	16	6.9
합계	233	100.0	231	100.0

<그림-6> 집단 간 학교참여의 차이



그런데 조사대상자들의 지각이나 결석 경험을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병 153명 중 52명(33.9%)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수형사병의 경우 총80명 중 39명(48.8%)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038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병 153명 중 56명(36.6%)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수형사병의 경우 총 78명 중 23명(29.5%)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392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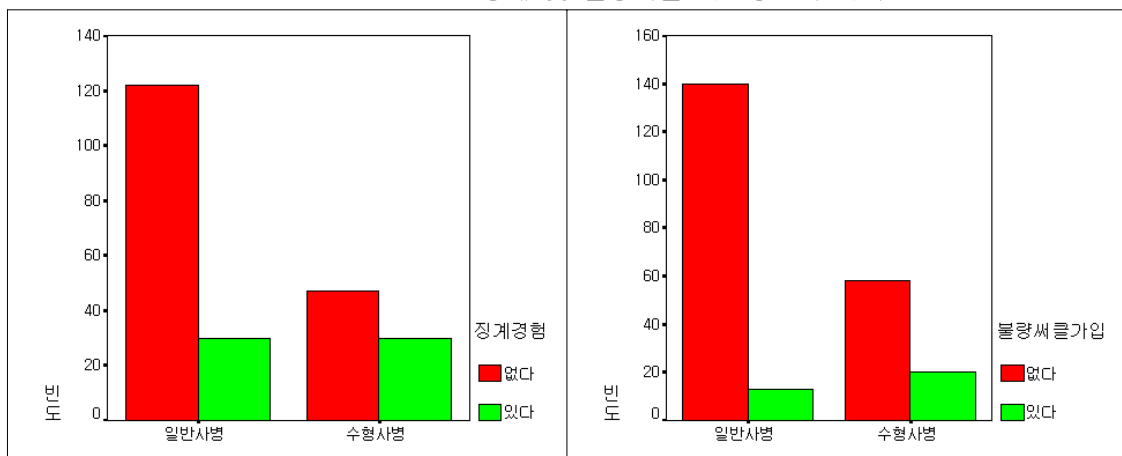
2) 징계 및 불량씨클 경험요인

조사대상자들이 학창시절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험과 학교내 불량씨클 등에 가입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응답자 229명 중 60명(26.2%)이었고, 학교내 불량씨클에 가입한 경우는 총231명 중 33명(14.3%)이었다.

<표-11> 징계 및 불량씨클 가입경험

비 교	정학 등 징계		학교내 불량씨클 가입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없다	169	73.8	198	85.7
있다	60	26.2	33	14.3
합계	229	100.0	231	100.0

<그림-7> 집단 간 징계 및 불량씨클 가입경험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이 학창시절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병 152명 중 30명(19.7%)이 경험이 있는 반면, 수형사병의 경우 총 77명 중 30명(39.0%)이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002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학창시절 학교 내 불량씨클에 가입한 경우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병 153명 중 13명(8.5%)이 경험이 있는 반면, 수형사병의 경우 총 78명 중 20명(25.6%)이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001로 유의미하였다.

3) 집단따돌림 경험요인

조사대상자들의 왕따당한 경험과 왕따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우선 왕따당한 경험의 경우 총 232명 중 전혀없었다가 200명(86.2%), 1-2번 있었다가 26명(11.2%), 3-4번 있었다가 5명(2.2%), 매우많았다가 1명(0.4%)이었다. 또한 왕따한 경우는 총 232명 중 전혀없었다가 171명(73.7%), 1-2번 있었다가 41명(17.7%), 3-4번 있었다가 11명(4.7%), 매우많았다가 9명(3.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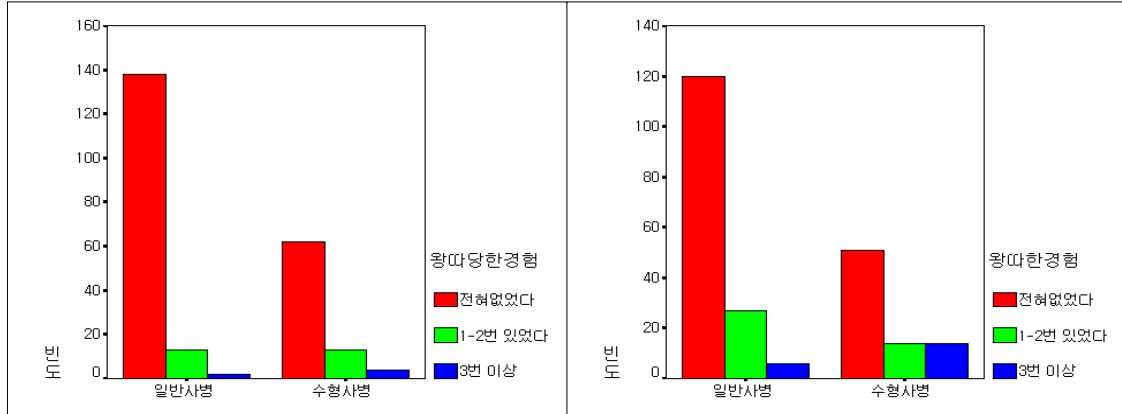
<표-12> 집단따돌림 경험

비 교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없었다	200	86.2	171	73.7
1-2번 있었다	26	11.2	41	17.7
3-4번 있었다	5	2.2	11	4.7
매우 많았다	1	.4	9	3.9
합계	232	100.0	232	100.0

조사대상자들이 왕따 당한 경우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사병 153명 중 15명(9.8%)이 1번 이상 경험이 있는 반면, 수형사병의 경우 총 79명 중 17명(21.6%)이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037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왕따한 경우를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사병 153명 중 33명(21.5%)이 1번 이상 경험이 있는 반면, 수형사병의 경우 총 79명 중 28명(35.4%)이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 .002로 유의미하였다.

<그림-8> 집단 간 집단따돌림경험의 차이



V. 요약 및 결론

군 사고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그 파악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기초의 일환으로 군입대전 경험요인과 군범죄의 관련성에 대하여 기초적인 탐색적 연구를 했다. 즉 조사대상을 일반사병과 수형사병으로 구분하고, 사병의 성장기의 가정환경, 미성년기의 경험, 학교생활 등 군입대전 경험요인을 중심으로 군 사고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군내 폭행사건, 군무이탈, 자살 등 군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가정요인 중에서 부모의 애정정도, 부모의 갈등요인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반면에 아동기의 신체적·언어적 폭력피해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비행요인을 보면 미성년기의 성경험, 가출, 자해내지 자살시도, 흡연, 본드 등 마약류의 복용경험 등 비교적 많은 비행요인들이 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주나 폭력물의 접촉경험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셋째, 학교요인에는 지각 등 학업몰입요인과 징계경험, 불량씨클 가입경험, 집단따돌림을 당했거나 해본 경험요인이 양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군 입대 전에 가정, 학교와 비행경험요인이 군 입대 이후의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군입대 후의 범죄적 행동에는 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적 요인 외에도 군입대 자원의 입대 전 경험요인들 중에서 일부요인들은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행동들은 미리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입대전 경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앞으로 군 입

대 자원의 군범죄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보다 일반화를 담보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유자. 2000.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우울 성향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회지, 40(2), 279-291.
- 김준호·이동원. 1993. “비행소년 감별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진열. 2001. “청소년 잠재비행의 실제비행화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류명수. 2004. 육군인성검사 현황 및 발전방안. 육군교육사령부 2004년도 세미나 자료집.
- 민수홍. 1996), “비행의 조기에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재윤. 1997), “범죄예측의 이론과 실제:-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의 과학화를 위하여”, 국민대학교논문집, pp.7~20.
- 이상현. 1996. “범죄가능성의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 pp.163~188.
- 이수정·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2.
- 최학선. 2000.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석사논문.
- 현광섭. 2003. 군복무 이상자에 대한 추적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ye Maung N, Hammond, N. 2000. Risk of Re-offending and Needs Assessment: The user's perspective, Home Office Research Unit Study No. 211, RDS(D), Home Office, London.
- Born, M., Chevalier, V., Humblet, I. 1997.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6), 679-694.
- Baird, S.C. 1991. Validating Risk Assessment Instruments Used in Community Corrections. Madison WI: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Baird, S.C. 1984. Classification of Juveniles in Corrections: A Model Systems Approach. Madison, WI: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Barton, W., and K. Gorsuch. 1989. "Risk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 Juvenile Justi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 Hawkins, J.D., R.F. Catalano, and J.Y. Miller.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Bulletin 112:64-105.
- McGuire, J (ed). 1995. What Work: Reducing re-offending-guidelines from research and practice, Wiley, Chichester,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Winnicott, D. W. 1965. Ego distortions in terms of true and false self: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London: Hogarth.

저자약력 : 김상균(金相均)은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박사학위(2001)를 취득하였고 현재 백석대학교 법정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육군3사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조사관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범죄심리와 범죄예방, 범죄예측 등이다. 주요 연구는 범죄심리학(2008), 경찰부패통제방안(2007), 전의경의 폭력경험에 관한연구(2006), 범죄학원론(2004), 범죄피해자학(2005), 신형사정책(2004) 등 이 있다.